

연 중 제 19 주 일

기 도 서 P. 409 C해

- 1독(지 서 18장, 6~9절)
- 2독(히 브리 11, 1~2. 8~12절)
- 복음(루 가 12장 35~40절)

# 숨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정 승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1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 론 □



## 지혜로운 바보

김 순 태 신부

군대에서 흔히 “졸면 죽는다”는 구호를 외치고 강조합니다. 이 구호의 의미는 근무시간에 자기의 임무를 수행치 않고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적군이 나타나 죽을 배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군은 언제 올 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때에 변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충실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은 언제 오신다고 예고하시지 않습니다. 밤중에 올것인가, 또는 새벽에 올것인가 우리는 알길이 없습니다. 그 분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것을 다 파악하고, 모든것을 다 지배하는 지혜로운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치의 미래도 내다 볼 수 없는 우둔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일의 아름다운 금모래성을 쌓고 이상적인 설계를 계획하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밤새 일어날 자기의 운명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 역시 지혜로운 인간으로 자처할지 모르지만, 한치의 미래도 내다 볼 수 없는 무식꾼임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것 같습니다. 또한 언제 주인이 오실지도 모르는 환경속에서도 현실에 바둥대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인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회를 한번 살펴 봅시다. 위선과 허위가 가면을 쓰고 울가미를 놓는다면, 반목과 물이해가 음흉하게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비정과 오만이 재계를 부르는가 하면 혼탁되어진 도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양심과 정의가 흥정되어져가는가 하면, 거짓과 기만이 모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물질과 부가 왕으로 군림하는가 하면, 빈곤으로 숨통이 질눌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인간은 문명의 극치를 치닫는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멸망의 바벨탑임은 알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런 타류의 틀바구니에서도, 오늘도 무사함에 인도의 숨을 내쉬면서 내일도 무사하겠지 하는식의 안일주의자는 아닌가 돌이켜보아야 할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증은 과연 어떤 종이겠습니까?

사회의 타류속에 적당히 휩쓸리면서 언젠가는 청산해야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시급하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해야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좁과 도둑이 침범하는 지상의 창고를 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축적되는 하늘의 창고를 짓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인이 돌아 왔을 때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합니다”(루가 12, 37).

(김재 전주교회 보좌신부)



## 기 우(以祈甘雨)

목말라 하는 대지,  
찌는듯한 더위.  
이 모두가 기록적이라 한다.

이 어려움을 견디어내기 위하여 정부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비를 동원하고, 동원령을 내리고, 피해지구의 국민들은 생명을 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난 뒤로는 집에서 쓰는 물 한 방울에도 깊은 신경이 쓰여짐은 왜일까?  
한 쪽에서 남의 묘까지 파헤치는 극성(?)이 입전처리됨을 볼 때, 어처구니 없다가 보다 안스럽게 여겨짐은 왜일까?

기우(祈雨)라는 낱말을 찾다가 「시경(詩經)」까지 들쳐보니 이런 대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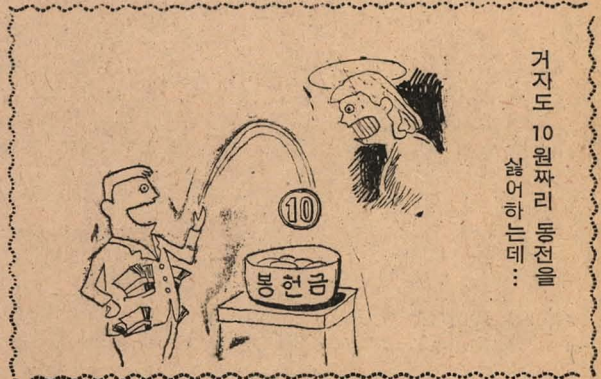
琴瑟擊鼓 「금슬(거문고와 비파) 뜯고 북을 울려」  
 以御田祖 「전조(田祖) 신을 맞이하여」  
 以祈甘雨 「단비 오게 치성드려」  
 以介我稷黍 「우리 기장 잘되게 해」  
 以穀我士女 「우리 식솔 먹여보세」

그렇다. 옛 선인들은 단비가 내리게 치성드리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삶의 기본인 식생활을 해결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며 하느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일이다.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여,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를 주시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 생명에 요긴한 것을 얻고, 오로운 마음과 성실한 뜻으로 주의 명을 따라 열심히 선행에 힘쓰게 하소서.”

## 숨 정 이 산책



거지도 10원짜리 동전을  
싫어하는데:



□ 성서교실 ⑩ □



### [테살로니까 후서]

김 종 대

저자와 저술장소: 뚜렷치 못한 저자 여부로 이설이 있으나 문체 및 내용으로 보아 사도 바울로의 저작임이 뚜렷하며 초대교회의 교부 빌리까르보가 필리피 교회에 보낸 서간에서 본 서간의 1,4과 3,15을 인용하고 있어 2세기 초에도 바울로의 서간으로 간주 했다고 볼 수 있다. 사도 바울로는 코린토에서 테살로니까 전서에 이어, 그곳 교회가 동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AD. 51~52년경에 이 서간을 저술했다.

저술 동기: 세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신전하고 다니는 자들로 인하여 테살로니까 교회가 동요되고 있었다. 이에 바울로는 2장 이하에서 "주님의 날"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면서 - 마르13,22에서 볼 수 있듯이 - 주님의 재림 전에는 반드시 불법자들이 나타나는 징조가 있음을 깨우쳐 주며 주님의 재림이 벌써 도래했다는 것은 옳지 않고 장차 올 것이므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참으며 희망을 결실하게 지니며 행위를 바르게 하도록 이 글을 썼다.

내용과 신학: 주님의 날은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전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무법자"(2,3-4), 혹은 "별망의 운명에 있는 자"(요한 7,12)이며, 요한 1서 2,18에서는 "그리스도의 적"으로 나타난다.

저자는 그 시대의 표상들을 도입하여 표현하면서 세말의 행복을 이스라엘만이 누릴 수 있다는 생각과 세말의 행복을 현세적으로 여기는 점을 반박하고 만민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으며 세말의 행복을 초 현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본 서간에서 바울로는 교회가 주님의 날을 학수고대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격려하고, 교회 설립의 연륜이 적어(AD. 50년경) 신앙이 확고치 못한 신자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신앙 안에서 사랑의 열성을 보여준다.

이 서간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은 묵시문학의 표현을 빌려 서술한 것이지만 세말의 근본적 교리는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다. 바울로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희망을 지닌 신앙인이라 하여 현세를 경시하지 말고 확고한 신앙을 통하여 현세적 충실과 인내로써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한다.

□ 여름밤에 띄우는 편지 □



### 유쾌 지수

박 데 레 사

신부님!

제 짧은 생애에 비추어 기억이 없을 정도의 더위요, 가름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물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정례적으로 갖는 어린이 교리, 중고생 교육, 청년 연수회 등으로 밤이 마를 날이 없으시겠지요. 거기 에다 농촌본당을 맡으신 신부님께서는 가름에 대한 걱정 까지도 열을 올려주는 하나가 되겠지요.

신부님, 날씨가 덥다보니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물리고 있다고 연일 보도되네요. 폐유가 흘러든다는 해수욕장도 해수욕장이라고 사람이 물리는 꼴을 보면 쓴웃음이 나네요. 자연을 찾아 더위도 식히고 호연지기도 배운다는데 피서의 큰 뜻이 있을텐데, 이제는 거의 연례행사 처럼 바다나 산으로 물리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어요. 풀장도 그렇다네요. 물이 더러운 것은 말할것 없고, 저 도 여자이지만, 여성들의 불쾌사나운 꼴이 번지고 있다는 방송을 듣다보니 부끄러움이 앞서요. 신부님, 제가 왜 이렇게 짜증나는 말씀만 드렸는지 모르겠군요. 아마 너무나 덥다보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양해하세요.

신부님, 불쾌지수가 높다보니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금년 여름을 보다 시원하게 지내려고 두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을 치켜나가다 보니 수양이 되고, 사랑을 실천해나가는 참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게 모습에 몰두 놀라게 되고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밤, 신부님께 자랑(?)해 보겠어요.

첫째, 단정적인 말은 하지말자. 「그건 절대로 않돼,」 「네가 뭘 알아, 너는 틀렸어」- 이런 말들은 안해볼 작정이예요. 저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니 가끔 아이들에게 단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저라고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미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자면, 배수진을 쳐놓은 말을 불쑥 뱉어버린 연후라 심히 씩씩러운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해보았어요. 어머세요. 신부님은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둘째,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바꾸어 생각한다-역지사지(易之思之). 제가 교사라는 단순한 그것 때문에 저는 가끔 제가 만능(萬能, 울마이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생각이고, 유치한 처사입니까? 사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손해보는 일은 드물거든요. 신부님도 신자들 편에서 보세요.

결국 이렇게 지내기로 맘먹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보니 올 여름이 덥지만은 않더군요. 신부님, 제가 너무나 수다를 떨었는가도 싶군요. 밤이 깊었습니다. 밝은 내일을 기약하며 잠을 청해 봅니다.

□설계·감리·허가 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향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 신원 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 전 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 3-1449

\* 신앙인의 영혼 양식인 성서·성물 \*

가톨릭 출판사 전북 총판

### 천 사 의 집

□전동 성당 구내 (前 대전 신용조합 사무실)

□연락처...전화 2-3222



□ 토막 소식 □



# 7월 정의 평화 미사 (7월 25일 노송동에서)

## □ 미사 지향 □

지난 7월 17일 감옥에서 고생하시던 신현봉 신부님과 다른 열세분의 “양심의 수인”들이 풀려 나왔다. 다행한 일이며 앞으로 다른 분들도 계속 풀려나올 것을 희망한다.

양심의 수인들은 누구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법의 제재로도 예측시킬 수 없는 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죄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들이 죄에 대한 자유를 주장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죄는 법의 지배를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양심의 수인들은 세계 도처에서 감금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제사면위원회는 올해를 “양심의 수인의 해”로 정하고 그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들을 석방함으로써 진정한 인류의 양심을 되찾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보다 나은 세계를 이룩해야 할 시기에 우리는 서 있다.

오늘은 “양심의 수인”들을 위해 이 미사를 봉헌한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양심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자신도 진정한 자유인이 되도록 기도하자.

## 전주 교구 인성회

### □ 때늦은 소식 □

지난 7월 5일 밤 10시부터 내리 다섯시간, 210mm의 집중폭우가 쏟아졌다. 전라북도 이 오지인 무주, 진안, 무주, 금산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인 용포리 등 8개 마을을 휩쓴 비는 7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피해액 2억1천5백5십만원, 농경지 유실 및 매물 80정보 등의 피해로 이재민이 102명이나 났다.

안양지구의 수해가 크다보니 무주지구의 피해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고마움에도, 우정넘치는 형제애에 가슴 뜨거운 노송동 본당 교우들을 선두로 해서 성금, 옷가지 등이 교구 인성회에 접수되었다. 교구 인성회에서는 그 일부인 10만원의 성금을 무주지구 수해복구에 보탬이 되도록 전달했다.

### □ 접수된 정성들 □

노송동 본당(1만원), 장계 본당(14,670원), 신태인 본당(7,335원), J.O.C(5,260원), 중앙 본당 방지거 3회(3만원), 양말 4족, 의류 226점, 배 4필, 이불 1점, 덕진 본당(10,530원), 무명씨(와이셔즈 10점), 교구 정의평화위원회(14,250원)

### □ 임 원 □

총재...김재덕 주교, 위원장...김용태 신부(창인동), 사무국장...최남수(센타 사무장), 상임위원...박성운 신부(팔마), 이재후 신부(남원), 조성호(평협회장), 유영철(한국신협 이사), 안득수(대학병원 내과과장), 김울태(영진약국), 김남규(정읍 사도회장), 감사...김영일 신부(성모병원), 박종복(신협 지도역)

## 요심이 (210) 김병오



### ◇ 신장개업! ◇

다모아 양복점

황정규 (요새)

이리시 창인동, 익산군청 앞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외 교우집으로 오세요

##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

## 태 광 사

(구 태 양 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 □ 주산반·부기반·경리실무반 □

## 삼일 주산 경리학원

(국교부, 중고등부, 일반부)

점진경(분도)

☎ ① 1462

병무청 ↔ 구 법원 중간

### □ 타자수리, 취업알선, 매월점정 □

## 뉴-타자학원

원장 신승무(바오로)

전화 ② 66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 ◎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울태(베드로)

☎ 육교옆 중앙시장동

(전화 ③ 4577)

### □ 개원안내 □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소아과〉 앞

원장 김현(아오스당)

전화 ② 1665





- 1. 여성 제 4차 꾸르실로 (18일 오후 6시-21일, 가톨릭 센터, 대상...1·2·3지구 교우<본당신부 추천>)  
※ 선배 꾸르실리스타의 많은 참석과 빨랑카를 부탁드립니다
- 2. 중고등 학생 연합회 제 8차 하기 수련회 (11~13일, 고산선별...고산성당 뒤)  
①목적...신앙심 강화, 리더십 트레이닝 ②대상...각 본당 회장단 및 희망자  
③참가비...1인당 400원 (기념품대) ④준비물...미사도구, 야영장비일체
- 3. 대학생 연합회 제 9차 지역대회 (16일 오전 9시 천동성당집합, 등록, 출발, 19일 폐회)  
※주제...「하나가 되자」 ①접수...13일까지 오후5~6시, 가톨릭 센터내 대학생 연합회 ②참가비...3,000
- 4. 조국을 위한 월요기도회 (8일 오후8시, 가톨릭 센터)  
□ 방송안내...문화방송(MBC)...매일 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원 신부 방송  
...서해방송(SBC)...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한기호 신부 방송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 1. 방지거 3회...오늘 오후 2시반, 강당에서
- 2. 삼지회 야유회...오늘 공식미사 후
- 3. J, O, C 정기총회...오늘 공식미사 후
- 4. 성모회 정기총회...13(토) 오전 8시반, 대아리
- 5. 자기 집 주소, 전화번호...본당 사무실에 정확히 알려주세요
- 6. 성경을 읽고 성가를 다 함께 부르는 신자 됩시다,  
□ 지난주 봉헌금...110,73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 1. 사도회 월례회...오늘 공식미사 후
- 2. 공소 어린이 여름 특별교리...7~14일  
재속 형제회 청년회원들이 수고하셨습니다
- 3. 고백성사...수·목·금요일 오후 2~8시반
- 4. 영세자 피절...12(금) 오후 2~5시  
① 영세식...13일 오후 3시  
② 대부모와 함께 2시반까지 사무실로
- 5. 성모 승천 맞이 대청소...13(토)
- 6. 교무금을 속히 완납합시다  
□ 파티마 성모 초 봉헌금...34,576원  
지난주 봉헌금...47,73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 1. 주일학교 여름 특별 교리...8~13일  
1일 교장...김용환(8일), 엄기섭(9일), 김은식(20일)  
유제상(11일), 조준석(12일), 소근호(13일)
- 2. 어린이 첫 영성체 교리...8일 오전 9시부터
- 3. 성경 연구 교리...신자, 예비자 참석바람
- 4. 본당 신축현금 신입...누계 8,930,500원  
최인순(1만원), 방요재(5천원)  
□ 지난주 봉헌금...47,481원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1. 사도회...오늘 공식미사 후
- 2. 성우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 3. 주일학교 여름 특별교리...8~13일
- 4. 중 고생 교리  
① 7일 오전 9시(강사 양규철)  
② 14일 오전 9시(강사 김낙환)
- 5. 성모 승천 대축일 합동 가정감사 미사 봉헌  
한 가정도 빠지지 맙시다,
- 6. 파티마 성모상을 모신 특별기도

- ① 8월 1~30일까지 새벽 5시~밤 11시까지
- ② 지향과 기도 및 순서는 게시하였음
- 지난주 봉헌금 : 38,68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2. 성모 승천 맞이 대청소 : 13일 오후  
학생회원과 청년회원은 꼭 나오세요
- 3. 미사시간 변경  
① 주일...오전 5시반, 10시, 오후 8시  
② 평일...오전 6시(주일 학생은 토요일 오후 4시)
- 지난주 봉헌금 : 38,96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 1. 사도회, 부녀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 2. 고등학생 쉼 회합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반
- 3. 공동체 성가연습 : 매주일 8시반  
모든 신자의 참석바랍니다
- 4. 영세식 : 14일 공식미사 전
- 5. 신자들의 기도  
① 다음주...이상용, 김경주, 김기춘  
② 15일...전종근, 장원모, 김영철
- 지난주 봉헌금 : 47,27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석  
사도 회장 유성용

- 1. 사도회 : 저녁미사 후
- 2. 성화회 : 공식미사 후
- 3. 유아세례 : 2시 어린이 미사 후
- 4. 제 4차 성지순례 : 소년 P. 천호공소
- 5. 영세자 교리 : 매일 저녁미사 후(합동)  
영세식...13(토)일 밤
- 6. 주일학교 교리 : 8~13일, 오전 9시  
첫 영성체 교리...계속
- 7.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 주일과 같음
- 8. 새 성당 신축현금 : 누계 28,808,400원  
전동 부활상회, 남문유리점(각 10만원), 정금순(5만  
원), 성서 동지회(추가 2만원), 강바울라(2천원),  
교동 한태수(1만원), 유발도토메오(3천원), 김병열  
(5천원), 최덕남(추가 5천원), 풍남 김정희, 김영  
순(각 1만원)박광기(5만원), 강정미, 김영자(5천원)  
남노 김로사리아(5천원), 효자 조정웅(1만원),  
기타 이영희(1만 5천원)  
□ 지난주 봉헌금 : 103,550원